

광주 수완지구에 최순실 가족 100억대 건물

올 1월 여동생 남편 명의 등기
아동복·레스토랑 등 5곳 입주
여동생 부부 1300억대 부동산

최순실씨 친인척 재산이 전국적으로 수 천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씨 여동생의 남편인 재부가 광주 수완지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100억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올해 1월 서씨 명의로 등기됐다.

최씨 바로 밑 여동생 남편인 S물산 대표 서모(69)씨가 수완동에 소유하고 있다. 30일 일자가 본 건물에는 아동복 매장인 레스토랑, 과자점 등 5개 업소가 입주해 있다. 이 매장들은 S물산이 모두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층에는 서점 1곳이 임대해 영업 중이다. 최씨 재부 서씨는 국내 유명 아동복 회사를 경영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30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서씨 건물 인근 주민들은 “수완지구 커가고 주변



최순실씨 바로 아래 여동생 남편인 서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빌딩.

상권이 형성이 되고 있으니 어디서 정보를 얻어서 왔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 강남 청담동에는 최씨 여동생 부부가 공동 명의의 9층 건물을 보유한 것

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에 있는 만큼 가치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씨의 여동생은 기업체 대표를 맡고 있

으며 이들 부부는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등을 포함해 모두 1300억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사진=최승렬기자 srchoi@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해결사?

광고업체 대표에 “지분 넘기라” 압박... 녹취록 나와
차은택 사단 멤버... “문체부장관 앉히려 했다” 증언도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을 이끌고 있는 송성각(58) 원장이 차은택 사단의 멤버로 ‘해결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경향신문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송 원장은 지난해 6월 중소 광고업체인 컴퓨터게더의 대표에게 “회사 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컴퓨터게더가 큰일 날 지경에 닥쳤다”며 이 회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지분을 제삼자에게 넘길 것을 권했다. 미르·K스프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컴퓨터게더를 인수하려는 차씨 측을 위해 송 원장이 나서 지분 매각을 강요 또는 회유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신문은 또 차씨가 CF감독으로 활동할 당시 ‘은인’이었던 송성각씨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앉히려 했다는 증언을 보도했다. 제일기획 상무 출신으로 CF 감독 출신 차씨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던 송씨는 실제 장관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 해 12월 한콘진 원장으로 임명됐다.

송씨 측근인 한 인사는 경향신문에 “2014년 5월쯤 수도권권의 한 골프장에서 송씨가 ‘형, 나 문체부 장관 될지도 몰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송씨가 ‘차은택이 조감독 시절 내가 광고 줘서 잘됐다며 나를 은인으로 생각한다’며 ‘보담한다면서 문체부 장관 줄 테니 이력서를 달라고 해서

이력서를 줬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2014년 6월 말쯤 다시 만난 송씨가 과거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이사를 하면서 휘말렸던 송사 때문에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차관급으로 낮아질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고 같은 신문은 전했다. 송씨는 6개월 후인 2014년 12월 차관급인 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됐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원장 후보 심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지 않았는데도 원장으로 낙점된 점도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콘진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장조용합본트 중 문화장조용합본트 부가 기획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송 원장은 현재 연락두절된 상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연설문 유출’ 고영태 조사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40)씨가 27일 밤 검찰에 전격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어 30일에도 검찰이 고영태씨를 불러 2차 조사에 들어감으로써 최순실씨 조사를 앞두고 고씨로부터 보다 세세한 부분까지 보강 진술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미르·K스프츠 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고씨가 지난 27일 밤 9시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그가 언론 인터뷰에서 최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일을 가장 좋아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대통령 연설문·홍보물 등의 사전 유출 의혹 등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노조 “채권단, 미르재단 4억 기부과정 공개하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 28일 국정 농단 의혹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는 최순실씨가 관여한 미르재단에 채권단이 4억 원을 기부한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자료 등을 통해 “채권단은 미르재단에 4억원을 기부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며 “채권단은 경영이 어려운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 미르재단에 다수 대기업들이 출연한 가운데 노조가 출연 과정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노조는 “금호타이어 매각과 실적 부진

의 관련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탐상구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과 차입대출 때 상환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단기차입금 5200억원 채무 재조정과 국내 공장 설비투자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군인 할인·교사 무료입장 가능 취재용 티켓 5만원 넘어도 허용

김영란법 해석 TF회의

앞으로 공연이나 스포츠경기를 취재하기 위한 용도의 ‘프레스 티켓’은 5만원이 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허용된다.

또 군인 등 특정 직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할인 프로그램도 허용되며, 현장 학습을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입장도 가능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침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8일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리했다고 밝혔다.

TF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 티켓을 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라면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발급되는 프레스 티켓은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말했다.

TF는 또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 및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TF는 이 경우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일률적 제공’하도록 한 법 규

정과 관련, “참석자 중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 혜택 제공은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서 청탁금지법상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장 학습이나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방문한 교사의 경우 시설이용이 아닌 지도·인솔이 방문 목적인 만큼 무료입장이 가능하다고 TF는 밝혔다.

TF는 또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행위임에도 잘못 알려진 사례도 정리해서 발표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인은 물론 법적용을 받는 공직자라고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액기준(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비 1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게 그 요지다.

가령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공공기관 내부 직원끼리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TF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年 300만원까지는 받아도 된다?

지자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혼란 가중

중앙 부처는 물론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일제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섰다. 지난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특례청이 가장 먼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시행한 데 이어 한 달간 22개 중앙 부처가 행동강령을 각각 개정했다.

광역·기초자치단체도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밟으면서 행동강령 개정 추진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핵심인 이른바 ‘3·5·10(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각 지자체의 행동강령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그런데 행동강령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 담겨 오히려 공무원들을 혼

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300만원이상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반대로 해석하면 직무와 연관성이 없을 경우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까지는 받아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금품 수수 한도가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데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 법 시행 전에는 직무와 관련이 없을 때 1000만원 이하로 무관했지만 앞으로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한 해에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수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사형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1247-7700
0621372-9777

※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혈당조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 특허 제0522532호

대한민국 당뇨병 2건 등록!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포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농성동 무등산타워 10층 상가매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뷔페식당·사무실·병원 등 최적입지

▶ 수의계약진행
감정가 : 32억원
매매가 : 22억원

▶ 전용면적 : 1,070㎡(10층 전체)

문의

국제자산신탁
02-5202-3087
완도금일수협
062-364-2018

2017학년도 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1~2회, PM 7~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 논문제)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실제,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입학원서 작성	2016. 11. 3.(목) ~ 2016. 11. 18.(금)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우편 2016. 11. 3.(목) ~ 2016. 11. 18.(금)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면접서류 포괄	청구 2016. 11. 3.(목) ~ 2016. 11. 18.(금) 09:00~18:00
전형일시	2016. 12. 7.(수) 10:00~
합격자 발표	2016. 12. 22.(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친환경농업학/식품·차산업학/지역환경자원공학/전자컴퓨터공학(계약학과)

문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